

한진해운 사태 - 하역비 지원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 한진해운의 긴급한 하역비는 한진해운의 담보제공과 조양호 회장의 사재로 마련될 전망
- ◆ 이는 한진해운 지원이라기보다는 한진해운 선박에 화물이 묶인 화주들을 지원하는 대책
- ◆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이 안게 될 부담은 제한적. 화물하역 마무리 이후엔 지원 불필요

▶ 롱비치 터미널 지분 및 매출채권 담보로 600억원 조달, 조양호 회장의 사재 400억원 출연

-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미국 롱비치 터미널 지분 및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해 대한항공으로부터 600억원을 조달하고, 조양호 회장은 사재 400억원을 출연할 전망. 이상의 자금은 각국 항만업체들에게 지급되어 한진해운에 선적된 화물들을 하역하는 데 사용될 것

▶ 이번 조치는 한진해운 지원이 아닌 한진해운 선박에 화물이 묶인 화주들을 지원하는 대책

- 전일 (9월 6일) 보고서에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조치는 한진해운 선박에 화물이 묶여 있는 화주들을 돕기 위한 것. 한진해운은 지난 9월 1일 이미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됨. 따라서 한진해운의 상거래 채권 연체로 피해를 본 거래처들은 한진해운에 대한 소송을 통해 채권을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음. 그러나 한진해운 선박과 함께 해상에 고립된 화물들이 이른바 ‘물류대란’으로 통칭되는 사태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된 것이 현재 상황의 특수성. 이에 회생절차개시 이후임에도 정부가 공익적 차원에서 한진해운에게 화물들을 빨리 내려놓도록 한 것으로 판단함. 이에 한진해운은 선박역류로부터 자유로운 항구를 골라 하역비를 우선적으로 지불하면서 묶여 있는 화물을 하역하게 됨
- 한진그룹이 내놓은 조치는 정부의 대책과 일관됨. 유일호 부총리는 선박 압류금지가 발효된 항만을 거점 항만으로 지정하고, 한진해운 선박의 화물을 하역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거점별, 대륙별 항만을 선정해 선박을 입항시킬 경우 700억원에서 1,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유일호 부총리는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책임을 진다는 전제 아래 하역비 등 일부 필요자금에 대해서는 채권단과의 협의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법원과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이 안게 될 부담은 제한적. 화물하역이 마무리되면 추가 지원 요구도 없을 것

-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예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역비 지원의 목적. 하역비 지원의 목적을 판단해야 지원금액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음. 하역비 지원을 한진해운 정상화를 위한 지원으로 이해할 경우 앞으로도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그러나 회생절차개시 이후 한진해운의 정상화는 그 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음. 따라서 이번 하역비 지원은 한진해운 선박에 고립되어있는 화물을 수송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하역비 지원에 따른 대한항공의 부담은 제한적.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한진해운의 롱비치 터미널 지분 및 매출채권을 담보로 600억원의 하역비를 지원함. 그러나 그 절대금액이 크지 않고, 대여금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으며, 담보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대한항공의 실질적인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
- 이후 대한항공이 추가 지원에 나설 가능성 또한 매우 낮음. 당장 필요한 하역비는 현금으로 우선 지급되지만, 하역문제 해결에 필수적이지 않은 용선료, 유류비 등 기타 연체 상거래 채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들이 소송을 통해 인정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임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발간일 현재 동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조사 분석 대상 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및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저작물은 KB투자증권(주)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이를 무단전재, 재배포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